

I.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 (17-18장)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바벨론 ①귀신의 처소,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(18:2) - 영적부패 ②땅의 왕들이 음행하는 곳(18:3)-정치적 부패 ③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곳 (18:3) - 경제적 부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바벨론은 일차적으로 로마를 상징하고,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한다. ● “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” (18:4). ● 바벨론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문화가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 심판 날이 올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? 그날 악인은 슬픔의 애가를 부를 것이고 의인은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이다.

II. 어린 양의 혼인잔치(19장)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할렐루야 찬양 ①구원의 할렐루야 (19:1) ②심판의 할렐루야 (19:2-3) ③아멘 할렐루야 (19:4) ④통치의 할렐루야 (19:6) ● 어린 양의 혼인잔치 ①정혼식 때 신부집에 지참금을 준다 (예수님의 보혈). ②기다림의 시간이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(재림). ③신랑집으로 데려가 잔치를 벌인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신약에서 계시록 19장에만 네번 나오는 ‘할렐루야’ 출연자는 24장로 (19:4),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(19:5), 그리고 천군천사(19:6) ●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위해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(19:7-8). ● 신부가 예쁘면 신랑에게 기쁨이지만 성도가 깨끗하지 못하면 신랑에게 아픔이 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? 말씀으로 깨끗하게 나의 믿음과 행실을 단장하고 있는가?

Ⅲ. 천년왕국 (20장)		
1. 사실(Fact)	2. 의미(Meaning)	3. 적용(Application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탄이 천 년동안 결박당함 (20:1-3) ● 성도들이 천 년동안 다스림 (20:4-6) ● 사탄이 옥에서 풀려 나와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반역을 주도함 (20:7-9) ●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져 영원히 괴로움을 받게 됨 (20:10). ● 흰 보좌 심판 (20:11-15) <p>①생명책 -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</p> <p>②행위의 책 - 불신자의 죄된 행위를 기록한 책</p> <p>여기에 기록된 자는 둘째 사망, 곧 불못에 던져진다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흰 보좌 심판대에 설 준비는 지금이다.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이 끝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? ●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?

Ⅳ. 천년왕국설
<p>1. 무천년설 -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시대를 상징한다는 설. '천년'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설인데 지금 사탄이 무저갱에 갇혔다고 볼 수 없으므로(벰전5:8) 해석상에 문제가 야기된다.</p> <p>2. 후천년설 - 천년왕국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인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세워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.</p> <p>3. 전천년설 -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설이다.</p> <p>①역사적 전천년설 - 교회가 대환란을 겪고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경험한다는 설</p> <p>②세대주의적 전천년설 - 대환란기 이전이나 중간에 교회가 휴거되고, 오직 유대인과 불신자만이 대환란을 경험한다는 관점.</p>